

# 학급 적응감에 있어서 규범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을 중심으로 -

박현정\*  
나고야대학대학원

出口拓彦  
후지여자대학

吉田俊和  
나고야대학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규범의식과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에 대한 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급적응감과 교사의 지도에 착안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학교 1, 2학년 643명, 19학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에서는 개인규범, 또래집단규범에 대한 의식, 행동빈도, 교사의 지도, 학급 적응감을 측정하였다. 학급 적응감(교사, 급우)의 상위/하위집단별로 행동빈도에 대한 개인규범의식과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의 상대적 공헌도를 검토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낮은 적응감을 보인 학생이, 급우와의 관계에서는 높은 적응감을 보인 학생이 학급에서의 부조화행동에 있어서 또래집단 규범의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한편 교사의 학생지도행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학급 적응감(교사, 급우)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1요인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에서만 PM형 지도가 pm형·pM형 지도 사이에, Pm형 지도와 pm지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검토를 할 경우에는 규범의식을 높이는 지도 뿐 만이 아니라 학급 적응감을 높이는 지도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찰된다.

주요어 : 규범의식, 또래집단, 일탈행동, 학급 적응감

## 서론

집단의식이 강한 청년기 전기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친구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친구, 특히 동성의 친구나 또래집단의 가치관, 규범의식 등이 청소년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松元, 1996), 또래집단과의 양호한

관계는 사회적 불안이나 고독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Storch, Masia-Warner, 2004).

Warman과 Cohen(2000)은 공격성과 친구관계와의 관련을 검토한 연구에서 공격성이 강한 아이라 할지라도 공격적이지 않은 친구와의 교제로 인해 1년 후에는 공격성이 저하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것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또래집단 성원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또래집단

\* 교신저자 : 박현정, 名古屋大學大學院 人間發達科學研究科 博士課程後期課程, 전화 : 81-572-22-2820,  
E-mail : jungi2000@hanmail.net

의 태도나 규범의식의 유사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藤原(1980)도 청소년의 친구선택에 대해 서로 간의 유사성과 상보성을 바탕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비슷한 청소년들끼리 또래집단을 이루고 또 또래집단으로 구성됨으로써 가치관과 규범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감을 달래주는 역할을 또래집단이 담당하게 되며 때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岡村, 1995). 이 또래집단은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소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 뿐 만 아니라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안의 일탈행동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일탈행동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이 보고 되는 것은 중학생이며, 그 80%는 학교 안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전범배, 1996). 그러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일탈행동과 그 관련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질 것이다.

학교 안에서의 일탈행동을 심각성정도로 구분한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가 심한 일탈행동과 교실 안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칙을 어기는 정도가 가벼운 일탈행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도가 약한 교실 내 일탈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을 청소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청소년의 실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다룬 많은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규범의식과의 관련을 검토하고 있다(小嶋, 松田, 1999; 田中, 1991; 朴, 出口, 吉田, 2004; 竹川, 2006). 규범의식이 높다는 것은 사회규범이 내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에 적응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식이 무너질 때 폭력에 대한 욕구나 일탈행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다(小嶋, 松田, 1999). 일탈행동을 하지 않는 아동과 일탈행동을 하는 아동의 규범의식을 비교한 田中(1991)도 일탈행동을 하지 않는 아동의 규범의식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탈행동은 낮은 규범의식으로 비롯되는 것으로 그것이 행동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또래집단에 동조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高野, 1989). 그러므로 또래집단이 어떤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학생 개인의 인지는 학생 개인의 규범의식과 함께 그들의 일탈행동과 깊이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에 대한 인지와 개인의 규범의식 그리고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한편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은 학급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라는 학급적응감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구가 많은 것과 학급에 적응적이라는 것과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石田, 2003), 학급에 적응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의해 또래집단이 친사회적집단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래집단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급 적응감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검토하는 본 연구는 일탈행동에 대한 학생지도방침의 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급에 있어서의 대인관계는 친구를 포함하는 급우와의 관계 이외에 교사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수평적 관계인 친구나 급우와의 관계와 수직적 관계인 교사와의 관계는 그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옥치용(1991)은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는 이유는 성적과 결석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적과 결석은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이다(심선화, 1999; 이정아, 2002). 이 연구 결과들은 성적이 내려가는 것과 결석이 잦아지는 것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수평적인 관계인 또래집단이나 급우와의 관계가 재미를 중심으로 하는 놀이 관계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관계인 교사와의 관계는 성적이나 교칙엄수 등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교사의 존재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申井, 庄司, 2006),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교사의 지도력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로서도(山本, 2007), 학급 적응감을 검토함에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와 급우와의 관계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언급한 학급 적응감은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에 의해 변화될 것이 추측된다. 浜名, 松本(1993)는 담임 교사의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지도행동에 의해 교사와 급

우와의 관계 그리고 학습의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교사의 지도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행동이었기 때문에 학급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浜名, 松本の 연구결과와 같은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교사의 학생지도 유형이 어떤 형태로든지 학급 전체의 사회성이나(곽형중, 1995) 학급응집성(안애자, 2001)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吉崎(1978)는 교사의 리더십행동 즉, 학생지도 유형과 학급의 집단세력 구조와의 관련을 검토한 연구에서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에 의해 학생의 규율준수도, 학급연대감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은 크게 P형 지도와 M형 지도로 나뉘어져 있다. 三隅(1964)는 이 목적달성기능(performance function, 줄여서 P기능)과 집단유지 기능(maintenance function, 줄여서 M기능)으로 교사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 P기능은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급에서의 규칙준수를 촉진하는 교사의 지도행동이다. 반면 M기능은 학생을 배려하고 학교생활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지도행동이다. 三隅(1964)는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을 PM형, Pm형, pM형, pm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PM형 교사는 학교규칙이나 목표달성에 있어서 엄하게 주의하기도 하는 반면, 학생들을 이해하고 배려에 힘쓰는 교사를 말한다. 그리고 Pm형 교사는 학급의 목표달성에 있어서는 노력하지만 학생들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여 학급 유지 기능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지도유형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교사의 지도유형을 위의 4가지 형으로 나누어 학급 적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학생의 일탈행동이 개인의 학급적응정도에 의해 변화된다면 학급 적응감과 관련되는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지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범의식과 행동과의 관계를 학급 적응감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에 적응적인 학생, 특히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의 일탈행동은 무엇에 크게 영향을 받는가? 교사와의 관계에는 성적과 우수한 학교생활태도가 밀접

하게 관련되므로 또래집단의 규범의식보다 개인규범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학급에 적응적인 학생, 특히 급우들과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의 일탈행동은 무엇에 크게 영향을 받는가? 급우들과의 관계에는 놀이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개인규범 뿐 만 아니라 또래집단의 규범의식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학급 적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학생지도유형은 어떤 것인가? 교사가 어떤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급 적응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PM형 지도유형은 교사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유형으로 예측된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및 조사 시기

본 연구는 부산 직할시 소재 중학교 1학년 332명(남자 203명, 여자 121명, 불명 8명), 2학년 311명(남자 192명, 여자 113명, 불명 6명), 총 6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9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1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5.72명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643명중에 결손치가 있는 143명을 뺀 500명(남자 304명, 여자1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4년 2월이었고, 담임선생님에 의해 집단으로 실시되었으며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개인의 규범의식, 집단규범에 대한 의식, 일탈행동빈도, 교사의 리더십척도 그리고 학급 적응감척도로 구성되었다.

위의 모든 척도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대학원생들의 역번역법에 의해 번역되었다.

### 측정도구

#### 개인의 규범의식

吉田, 安藤, 元吉, 藤田, 廣岡, 齋藤, 森, 石田 및 北折(1999)에 의해 작성된 민폐인지척도의 하위척도인 규칙/매너 위반 행동과 주위사람들과의 조화를 깨뜨리는 행동 중 일부를 발취하여 학교에 있어서의 규범에 관한 내용으

로 변경시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규칙/매너 위반 행동 중에서 ‘공중화장실에 불쾌한 낙서를 하는 행동’을 ‘학교 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동’으로 변경시켰다. 吉田등의 민폐인지척도는 학교생활 뿐 만 아니라 일반생활도 포함하는 척도로 그 중에서 특히 중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되는 항목만을 참고로 하였다. 또 田中(1991)의 규범의식 척도와 申谷(1997)의 사회적 책임목표척도를 참고로 하여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조화행동 5항목, 규칙위반행동 5항목, 그리고 친사회적행동 5항목, 총 15문항의 규범척도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문항은 ‘좋다고 생각한다(5점)’ ‘조금은 좋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 내에서의 일탈행동은 단지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의 2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탈행동과 대칭개념을 가지는 친 사회적 행동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규범의식과 행동과의 관련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집단규범에 대한 의식

문항은 개인의 규범의식과 동일하다. 동일한 문항에 대해 ‘반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가장 친한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의 문장에 대해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지시문의 내용을 바꿨다. 각 문항에 대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5점)’ ‘조금은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 학교에 있어서의 일탈행동빈도

개인의 규범의식과 동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문항에 대해 ‘중학생이 되어서의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묻습니다’라고 지시문의 내용을 바꿨다.

행동빈도는 각 문항에 대해 ‘많이 했다(5점)’ ‘가끔 했다’ ‘잘 모르겠다’ ‘별로 하지 않았다’ ‘전혀 하지 않았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개인의 규범의식’, ‘집단규범에 대한 의식’, ‘일탈행동빈도’가 모두 동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의 일탈행동에 있어서 개인규범

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임으로 같은 문항에 의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 교사의 리더십

三隅, 吉崎 및 篠原(1977)의 교사리더십척도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P형 지도에 관한 문항과 M형 지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러신다(5점)’ ‘가끔 그러신다’ ‘잘 모르겠다’ ‘별로 그러지 않으신다’ ‘전혀 그러지 않으신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三隅 등(1977)의 교사리더십척도는 4점 척도였지만 중간에 ‘잘 모르겠다’를 넣어 다른 척도의 평정방법과 일치시켰다.

#### 학급 적응감

浜名, 松本(1993)의 아동의 학급적응척도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와 급우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적응감 문항을 참고로 하였다.

척도는 교사와의 관계 5문항, 급우와의 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정은 ‘항상 그렇다(5점)’ ‘가끔 그렇다’ ‘잘 모르겠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AA4는 역문항 처리한 것이다)  
그림 1. 행동빈도의 확인적요인분석

**결 과**

각 척도의 요인분석

**학교에 있어서의 규범의식 및 일탈행동빈도**

규범의식척도와 일탈행동빈도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주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깨뜨리는 행동인 ‘부조화행동’, 학교 교칙 등에 관한 ‘규칙위반행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친사회적행동’의 3개 영역이 있다.

표 1. 규범의식과 행동빈도

규범의식과 행동빈도	
(부조화행동)	
1	개인의 실수나 결점을 재미로 애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
2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7	남의 험담을 하는 것
13	남이 싫어하는 장난을 치는 것
(규칙위반행동)	
4	귀찮다고 생각될 때에도 당번일이 있을 때에는 착실히 당번 일을 하는 것(역문항)
8	숙제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
11	준비물을 잊어버리는 것
14	학교에 지각하는 것
(친사회적행동)	
6	약한 아이의 편을 들어주는 것
9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것
10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어도 수업 중에는 참는 것
12	곤경에 처한 아이를 돕는 것
15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
(삭제항목)	
3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5	학교 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것

표 2. 각 요인의 신뢰성계수

	개인규범	집단규범	일탈행동빈도
부조화	.56	.67	.66
규칙위반	.68	.73	.62
친사회적	.67	.75	.70

부조화행동과 규칙위반행동이 학교에 있어서의 일탈행동이다. 친사회적행동은 높은 규범의식과 관련되는 행동으로 예상됨으로, 규범의식과 일탈행동과의 관련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가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일탈행동에 해당하는 부조화행동과 규칙위반행동 그리고 친사회적행동의 3가지 행동에 미치는 규범의식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각 하위 영역별 전체 문항 수는 부조화행동이 5개 문항, 규칙위반행동이 5개 문항, 친사회적행동이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경로계수가 낮은 두 문항을 삭제한 확인적요인분석이 그림 1이다. 구성개념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것이다. 경로계수는 .42~.69사이에 있어 양호한 편이다.

부합도 지수는  $\chi^2$ 이 553.32이며, 자유도가 124, 유의수준은 .001이다. 그리고 GFI가 .92, AGFI가 .89, CFI가 .84, RMSEA가 .05였다.  $\chi^2$ 검증은 케이스수의 영향을 받기 쉬워 케이스수가 많아질수록 유의확률이 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가진다(田部井, 2001; 山本, 1999). 본 연구는 케이스수가 500이나 되는 많은 수이므로 유의확률이 낮아졌다고 본다. 그리고 모델부합도 지수인 GFI나 AGFI가 양호하며, 또 하나의 부합도 지수인 RMSEA가 .05이하이므로(山本, 1999) 전체적으로 본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3개의 하위영역(부조화행동, 규칙위반행동, 친사회적행동)의 각각 개인규범의식, 집단규범에 대한 의식, 행동빈도의 신뢰성계수는 표 2와 같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신뢰성 계수는 표 1의 문항을 검토한 것이다.

부조화행동과 규칙위반행동의 규범의식은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지를 한다는 의미이며, 친사회적행동의 규범의식 점수는 높을수록 친사회적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지한다는 의미이다. 행동빈도의 점수는 높을수록 행동빈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리더십**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합도 지수는 GFI=.94, AGFI=.91, CFI=.95, RMSEA=.05이므로,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하위영역은 각각 ‘P형지도 유형’, ‘M형지도 유형’이 있다.

그리고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P형지도’는  $\alpha=.79$ 이며 ‘M형지도’는  $\alpha=.91$ 로 일

표 3. 각 척도간의 상관관계

	학년	성별	교사	급우	P형	M형	개/부	집/부	행/부	개/규	집/규	행/규	개/친	집/친	행/친	
학년	2															
성별	-.04	2														
교사	-.21**	.06	1.00													
급우	-.03	-.19**	.34**	1.00												
P형	-.15**	.07	.78**	.27**	1.00											
M형	-.30	.06	.43**	.18**	.57**	1.00										
개/부	.07	.05	-.21**	-.01	-.18**	-.27**	1.00									
집/부	.07	.03	-.10	-.06	-.19**	-.17**	.40**	1.00								
행/부	-.05	.16**	-.18**	-.11	-.08	.01	.31**	.17**	1.00							
개/규	.06	-.00	-.26**	-.10	-.30**	-.27**	.49**	.25**	.11*	1.00						
집/규	.02	-.00	-.08	-.13*	-.16**	-.15**	.25**	.61**	.11*	.41**	1.00					
행/규	-.04	.08	-.18**	-.13*	-.17**	-.07	.18**	.12**	.42**	.34**	.14**	1.00				
개/친	.02	-.04	.27**	.12	.27**	.27**	-.46**	-.25**	-.24**	-.49**	-.28**	-.18**	1.00			
집/친	-.03	-.07	.12*	.19**	.21**	.16**	-.14**	-.55**	-.11*	-.17**	-.54**	-.06	.40**	1.00		
행/친	.07	-.14**	.33**	.26**	.19**	.13**	-.16**	-.10*	-.40**	-.19**	-.10*	-.33**	.39**	.21**	1.00	
M	1.50	1.39	2.65	3.28	2.92	3.48	2.11	2.41	3.28	1.98	2.29	2.87	3.82	3.53	2.97	
SD	.50	.49	1.06	.85	1.10	.98	.69	.86	.84	.69	.79	.86	.71	.84	.77	
n	500	500	268	268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p < .05$ , \*\* $p < .01$

개/부-개인규범(부조화), 개/규-개인규범(규칙위반), 개/친-개인규범(친사회적), 집/부-집단규범(부조화), 집/규-집단규범(규칙위반), 집/친-집단규범(친사회적), 행/부-행동(부조화), 행/규-행동(규칙위반), 행/친-행동(친사회적)

정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

### 학급 적응감

학급 적응감 척도에 있어서도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합도 지수는  $GFI=.93$ ,  $AGFI=.88$ ,  $CFI=.94$ ,  $RMSEA=.06$ 이므로,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하위영역은 각각 '교사와의 관계', '급우와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내적 일치도를 검토하기 위해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는  $\alpha=.88$ 이며 '급우와의 관계'는  $\alpha=.74$ 이어서 일정한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

### 측정변인간의 관계

각 척도 간의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6이상의 강한 상관을 보이는 곳은 학급

적응감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적응감'과 'P형지도' 그리고 '부조화에 관한 집단규범'과 '규칙위반에 관한 집단규범'과의 사이였다. .4이상 .6이하의 중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 곳은 'M형지도'와 '교사와의 관계 적응감/P형지도'의 사이였다. 그리고 '부조화'와 '규칙위반'으로 대표되는 일탈행동에 관한 규범의식이 서로 중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친사회적행동'에 관한 규범의식과는 중 정도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학년과 성별의 변인과 다른 변인들과의 사이에서 강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 행동빈도에 대한 예측변인의 상대적 공헌도

행동빈도에 대한 예측변인의 상대적 공헌도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측면에서 요약하면 표 4, 그림 2와 같다. 경로분석을 통해 개인규범에서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을 경유해서 행동에 미

표 4. 행동빈도에 대한 예측변인의 상대적 공헌도(학급 적응감)

		행동빈도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교사와의 관계	상위	부조화	.34	.31**	.03
		규칙위반	.24	.23**	.00
		친사회적	.29	.32**	-.03
	하위	부조화	.29	.23**	.06
		규칙위반	.26	.28**	-.02
		친사회적	.38	.37**	.02
급우와의 관계	상위	부조화	.15	.06	.10
		규칙위반	.11	.06	.05
		친사회적	.43	.44**	-.02
	하위	부조화	.41	.38**	.03
		규칙위반	.34	.39**	-.05
		친사회적	.36	.3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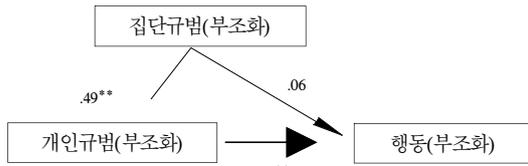


그림 2. 부조화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의 공헌도

치는 간접효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중학생의 일탈행동과 친사회적행동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공헌도를 보면,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인 경우, 일탈행동 뿐 만 아니라 친사회적행동에서도 직접효과의 영향을 보였다.

‘규칙위반행동’은 개인규범의 영향뿐 또래집단의 규범으로부터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없었다(.00). 그러나 ‘부조화행동’에 있어서는 또래집단의 규범이 정적으로 작용했으나(.03), ‘친사회적행동’에서는 부적으로 작용했다(-.03). 그러나 간접효과는 미약한 것이었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비적응적인 학생인 경우는 ‘친사회적행동’과 ‘규칙위반행동’에서 직접효과의 영향이 강했고, ‘부조화행동’에서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을 경유하는 간접효과의 영향(.06)을 받았다.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인 경우, ‘친사회적행동’에서는 직접효과가 강하고(.44), ‘부조화행동’과 ‘규칙위반행동’에서는 직접효과의 영향은 간접효과보다 작거

표 5. 각 규범과 행동의 평균치, 표준편차, t검증결과(학급 적응감-교사와의 관계)

		분류	n	M(SD)	t값
개인 규범	부조화행동	상위	131	1.99(.61)	2.66**
		하위	137	2.21(.77)	
	규칙위반행동	상위	131	2.25(.86)	1.92
		하위	137	2.46(.86)	
	친사회적행동	상위	131	3.16(.80)	2.82**
		하위	137	3.45(.87)	
집단 규범	부조화행동	상위	131	1.80(.62)	3.36**
		하위	137	2.07(.66)	
	규칙위반행동	상위	131	2.17(.78)	1.24
		하위	137	2.29(.78)	
	친사회적행동	상위	131	2.74(.83)	2.51*
		하위	137	3.00(.88)	
행동 빈도	부조화행동	상위	131	3.99(.57)	3.50**
		하위	137	3.71(.73)	
	규칙위반행동	상위	131	3.63(.81)	1.15
		하위	137	3.52(.79)	
	친사회적행동	상위	131	3.15(.68)	4.73**
		하위	137	2.71(.87)	

\* $p < .05$ , \*\* $p < .01$

표 6. 각 규범과 행동의 평균치, 표준편차, t검증결과(학급 적응감-급우와의 관계)

		분류	n	M(SD)	t값
개인 규범	부조화행동	상위	86	2.07(.69)	.54
		하위	182	2.12(.7)	
	규칙위반행동	상위	86	2.36(.86)	.06
		하위	182	2.36(.87)	
	친사회적행동	상위	86	3.31(.83)	.05
		하위	182	3.31(.86)	
집단 규범	부조화행동	상위	86	1.90(.64)	.70
		하위	182	1.96(.67)	
	규칙위반행동	상위	86	2.22(.75)	.28
		하위	182	2.24(.79)	
	친사회적행동	상위	86	2.78(.86)	1.18
		하위	182	2.91(.86)	
행동 빈도	부조화행동	상위	86	3.93(.63)	1.38
		하위	182	3.81(.69)	
	규칙위반행동	상위	86	3.65(.75)	1.18
		하위	182	3.53(.83)	
	친사회적행동	상위	86	3.09(.73)	2.44*
		하위	182	2.85(.84)	

\* $p < .05$ , \*\* $p < .01$

나 비슷했다. ‘부조화행동’에 있어서는 직접효과(.06) 보다 간접효과(.10)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이지 않은 학생은 전체적으로 직접효과의 영향이 강했고(.38, .39, .36), 특히 '규칙위반행동'에 있어서 간접효과가 마이너스였다는 것(-.05)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이지 않은 학생의 결과(-.02)와 비슷한 양상이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들보다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들이 일탈행동에서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은 일탈행동에서 전체효과의 영향이 약했고 적응적이지 못한 학생은 전체효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7. 각 지도유형별 학급 수

	PM	Pm	pM	pm
학급 수 (n)	5 (127)	6 (156)	2 (48)	6 (169)

표 8. 지도유형별 학급 적응감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교사와의 관계	급우와의 관계
PM형 지도	3.18(.97)	3.44(.78)
Pm형 지도	2.85(.96)	3.24(.86)
pM형 지도	2.60(1.07)	3.52(.91)
pm형 지도	2.10(.97)	3.12(.86)

학급 적응감과 '개인의 규범의식', '집단규범에 대한 의식', '행동빈도'와의 관련

학급 적응감과 '개인의 규범의식', '집단규범에 대한 의식' 그리고 '행동빈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검토하기 위해 학급 적응감(교사와의 관계, 급우와의 관계)의 상/하위 집단에 따라 '개인의 규범의식', '집단규범에 대한 의식', '행동빈도'('부조화', '규칙위반', '친사회적행동')의 평균값의 차를 *t*검증에 의해 비교했다. 표 5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표 6는 '급우와의 관계'에서의 검증결과이다.

표 5를 보면, 개인규범의식, 집단규범의식, 행동 전체에 있어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이는 곳은 '부조화행동'과 '친사회적행동'이었다.

'교사와의 관계' 상위집단은 하위집단과 비교하여 규범의식에서는 '부조화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며

(개인규범  $t=2.66, p<.01$ , 집단규범  $t=3.36, p<.01$ ), 일탈행동이 아닌 '친사회적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개인규범  $t=2.82, p<.01$ , 집단규범  $t=2.51, p<.05$ )이었다. 즉, 하위집단과 비교하여 상위집단이 높은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동빈도에 있어서는 상위집단이 '부조화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t=3.50, p<.01$ ), '친사회적행동'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었다( $t=4.73, p<.01$ ).

표 6을 보면, 급우와의 관계에서는 행동빈도의 '친사회적행동'에서만 유의차를 보였다. 상위집단이 친사회적행동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t=2.44, p<.05$ ).

#### 교사의 학생지도유형과 학급 적응감과의 관련

지도유형별 학급 적응감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지도유형을 분류하였다. P/M형 지도유형의 상/하위집단의 분류방법은 P형, MM형 모두 처음에는 학급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분석단위를 학급으로 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각각 P형=3.46, M형=3.03).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학급을 지도유형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7은 각 지도유형별 학급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며 학급을 운영해 나가는 데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므로, pM형 지도유형수가 2반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교사의 지도가 학급 적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학급 적응감(교사, 급우)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Tukey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지도유형별 학급 적응감(교사, 급우)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표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PM형 지도와 pm형 지도의 사이, Pm형 지도와 pm형 지도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그리고 PM형 지도와 pM형 지도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학생과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교사의 지도유형은 PM형과 Pm형 지도유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우와의 관계'에서는 PM형 지도유형 사이에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학급에 적응적인 학생, 특히 교사와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은 학생의 일탈행동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학급 적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지도유형은 어떤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학급 적응감이 규범의식과 행동빈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적인 학생은 적응적이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부조화행동에서 높은 규범의식을 보였다. 그러나 부조화행동에 대한 행동빈도도 높아, 높은 규범의식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다. 이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응적이지 못한 학생과 비교하여 낮은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빈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친사회적행동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개인규범의 직접효과가 강했다는 결과로 볼 때,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은 또래 집단이 준거집단이 아닐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 결과는 연구문제 1을 지지한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은 교사와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더욱 모범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 그런 자세가 높은 규범의식으로 나타났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부조화행동에서 뿐 만 아니라 친사회적행동에서도 규범의식과 모순되는 행동패턴을 보인 것으로 보아,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사회상과 그것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갈등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갈등상황은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할 것이다.

최지은, 신용주(2003)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또래와의 관계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와의 관계변인이었다. 또 학급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지은, 신용주는 이 결과에 대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적응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입시위주의 교육방향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학교성적이 좋아서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한 학생은 학교와의 목표가 일치함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적응을 말한다면,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나 학업 이외의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만족감들은 학교적응에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권오정, 김기정(2000)도 교우관계 적응도와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상관계수는 .30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외인 이외에 학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생지도유형 중에서 PM형 지도를 한 학급에서 교사에게 적응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학급연대감, 학습의욕, 규율준수에 있어서 PM형 지도가 최고득점을 표시했다는 三隅 등(1977)의 연구로부터도 뒷받침 되는 결과이다. 꾸깃기도 하지만 심리적 원조도 잊지 않는 교사의 균형 잡힌 지도가 학급 전체의 적응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학업 뿐 만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적응감을 느끼는 것은 지도 유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도라는 모양을 가진 빈번한 접촉이 적응감을 높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자기만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교사와 학생사이의 교류를 넓히는 것도 학급 적응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적인 학생이 높은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의식을 높이는 교육 뿐 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급 적응감을 높이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은 부조화행동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이지 않은 학생은 행동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인규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문제 2를 지지한다.

또래집단은 학생의 사회적 자원이며 사회적 기술이 풍부한 또래들 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갈등을 내재한 또래집단은 서로의 발달을 저해하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artup, 1996). 또래집단 안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 또한 청소년의 발달에 나쁜 영

향을 미치지만, 또래집단에 적응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래집단의 질적 측면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 주류인 부조화 행동에서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학생들의 또래집단의 규범의식에 따른 행동은 또래집단과 더 공감할 수 있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것은 급우와의 관계를 상/하위집단으로 나누었을 경우 개인규범과 집단규범 그리고 행동빈도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또래 집단에 적응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또래 집단에 적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학교적응 그리고 크기는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질과 대인관계의 질적 측면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河村(2003)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교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술을 학급 적응감과 관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학급에서의 승인감이나 학급적응감등의 학급만족감은 학생의 대화태도, 감정표출, 집단생활에의 능동적인 참가 등 스스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거나 정착시켜나가는 스킬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요인과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요인은 다를 것이다.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교사로부터 학생에게로의 일방적인 지시가 대부분이어서 학생과 양호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사로부터의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호적인 교류가 없다면 양호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교사와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급우와의 관계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사회적 기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前田, 片岡(1993)는 공격성을 또래들 사이에서 소외당하는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공격성을 표출하는 학생 중에서도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높은 학생도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Lease, Musgrove, & Axelrod, 2002). 공격성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가 거부되는가의 중심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반면, 사회적 유능감은 수용과 거부 양쪽 모두에 강하게 관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급우와의 관계에서 적응

적이지 못한 학생은 자신의 일탈행동 뿐 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또래집단의 영향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다. 이런 학생은 친구들을 사귀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유능감이 부족한 학생일지도 모른다. 또래집단에서도 주변적 존재이며 집단 멤버로부터도 지명도가 낮아 또래집단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또래집단의 규범의식보다 개인의 규범이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생활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 학급이나 학교에서의 규칙을 지키도록 주의시키는 등의 외적인 원조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긴장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힘쓰는 내적 원조에 균형 잡힌 교사의 지도행동이라 할지라도 학생의 급우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급우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지도가 아닌 학급 분위기 개선이나 학급의 단결력 등에 노력하는 간접적인 지도가 학교생활에서의 급우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급 적응감(교사, 급우)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분류했을 뿐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교사나 급우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대인관계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검토해 나갈 것이다.

또, 왕혜옥, 김광웅(2004)은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하고 있는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높은 적응감을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족요인이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이나 규범의식에 있어서도 가족의 영향력이 시사됨으로 이것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로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 하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생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샘플에 치우침이 예상되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또래집단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육원조자들이 중학생들의 윤택한 학교생활을 원조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 감사의 글

설문지조사에 협조해 주신 부산의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학생주임선생님,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 고 문 헌

곽형중 (1995).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지도성과 학급의 사회성과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오정, 김기정 (2000). 중학생 교우관계의 유형, 형성원인 및 학교생활 적응도 분석. *교육심리연구*, 15(1), 231-259.

심선화 (1999). 학생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접근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애자 (2001). 학생이 지각하는 담임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집단응집성 간의 관계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치용 (1991). 일탈행동 고등학생의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혜옥, 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전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이정아 (2002). 학생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범배 (1996). 학생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13.

Lease, A. M., Musgrove, K. T., & Axelrod, J. L. (2002). Dimensions of social status in preadolescent peer

groups: Likability, perceived popularity, and social dominance. *Social Development*, 11(4), 508-533.

Storch, E. A., & Masia-Warner, C. (2004). The relationship of peer victimization to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in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Adolescence*, 27, 351-362.

Warman, D. M., & Cohen, R. (2000). Stability of Aggressive Behaviors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GGRESSIVE BEHAVIOR*, 26-277-290.

松元泰儀 (1996). 人間關係のつまずきの病理 齋藤誠一篇, 青年期の人間關係—人間關係の發達心理學, 4, 培風館, pp.151-155.

木賢晶, 出口拓彦, 吉田俊和 (2004). 個人規範および集団規範に對する意識が個人の行動におよぼす影響. 教育心理學フォーラム・レポート FR-2004-03.

河村茂雄 (2003). 學校適應とソーシャルスキルとの關係の検討. *カウンセリング研究*, 36, 121-128.

石田靖彦 (2003). 學級内の交友關係の形成と適應程度に關する縦斷的研究. *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 52(教育科學篇), 147-152.

田中純夫 (1991). 規範意識構造から見た兒童の教室内問題行動. *犯罪心理學研究*, 29, 1-17.

吉崎靜夫 (1978). 教師のリーダーシップと學級の集團勢力構造に關する研究. *心理學研究*, 49, 22-29.

小嶋佳子, 松田文子 (1999). 中學生の暴力に對する欲求規範意識, 加害-被害經驗, 及び學校適應感. *廣島大學教育學部紀要*, 第一部(心理學), 48, 131-139.

藤原正光 (1980). 青年と學校生活. 仙崎武, 吉田辰雄篇. *青年期心理學*. 福村出版株式會社. pp.202-204

三隅不二不, 吉崎靜夫, 篠原しのぶ (1977). 教師のリーダーシップ行動測定尺度の作成とその妥當性の研究. *教育心理學研究*, 25, 157-166.

浜名外喜男, 松本正弘 (1993). 學級における教師行動の變化が兒童の學級適應に與える影響. *實驗社會心理學*, 33, 101-111.

三隅不二不 (1964). 教育と産業におけるリーダーシップの構造機能に關する研究. *教育心理學年報*, 4, 83-106.

前田健一, 片岡美奈子 (1993). 幼兒の社會的地位と社會的行動特徴に關する仲間實習生教師アセスメント. *教育*

- 心理學研究, 41, 152-160.
- 田部井明美 (2001). SPSS完全活用法, 共分散構造分析 (Amos)によるアンケート處理. 東京圖書株式會社, pp.140.
- 吉田俊和, 安藤直樹, 元吉忠寬, 藤田達雄, 廣岡秀一, 齋藤和志, 森久美子, 石田靖彦, 北折充隆 (1999). 社會的迷惑に關する研究(1).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46, 53-73.
- 山本嘉一郎 (1999). 共分散構造分析とその適用. 山本嘉一郎・小野寺孝義 編者. Amosによる共分散構造分析と解析事例(第2版). 株式會社ナカニシヤ出版, pp.17.
- 中谷素之 (1997). 兒童用社會的責任目標尺度の信賴性妥當性の検討.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44, 221-227.
- 竹川郁雄 (2006). いじめ現象の再検討—日常社會規範と集團の視点— 株式會社法律文化社.
- 中井知宏, 庄司一子 (2006). 中學生の教師に對する信賴感とその規定要因. 教育心理學研究, 54, 453-463.
- 山本 獎 (2007). 不登校狀態に有効な教師による支援方法. 教育心理學研究, 55, 60-71.
- 岡村圭子 (1995). 第2章 發達 淺井潔編著 人間理解のための心理學. 日本文化科學社.
- 高野清純 (1989). 青少年の規範意識の内面化過程: 法規範意識の發達を中心として. 九州大學教育學部教育經營學研究室.

## **The Effects of Self-norms and Consciousness Peer Group Norms on Individual Behavior at Class Adaptation**

**Hyun-Jung Park**  
Nagoya University

**Takuhiko Deguchi**  
Fuji Women's University

**Toshikazu Yoshida**  
Nagoya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examine empirically students' use of norms, both individual or self-norms and consciousness peer group norms, and the effect these have on individual behaviors, while focusing attention on student adaptation in class to other students and teacher instruction. Data were collected in 19 classrooms, with a total of 643 students (grades 7-8). The question sheet measured self-norms, consciousness toward group-norms, behavior frequency, teacher instruction, classroom adaptation. The calculated relative weight of self-norms, consciousness toward group-norms to behavior frequency when split into high and low levels of classroom adaptation, indicated that, in relation to consciousness toward group-norms and behavior frequency, the overall tendency was for relative weight figure to be high of consciousness toward group-norms in the low-groups relation to their teacher, and in the high-groups relation to their classmate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since a strong predictor of class adaptation was the performance of teacher instruction, importance needs to be placed on not only teacher instruction that heightens norm consciousness, but also instruction that increases class adaptability, when debating the control of problem behavior at school.

**Keywords: Norms; Problem behavior; Class adaptation; Peer group**

원고접수 : 2007년 6월 21일  
심사통과 : 2007년 7월 6일